

# 진짜사장·진짜교섭

현대자동차아산공장사내하청 현대제철비정규직·내화조업정비 현대모비스 아산·천안·서산·아산물류·EBS천안 비엠아이 테크젠

## 현대차는 숨지 말고 나와라

4월 22일 현대차 1차 원청교섭  
사측, 공장 문 닫고 노조 출입 막아  
"그래도 우리는 계속 간다"

현대차 자본은 끝내 단체교섭 상견례를 거부했습니다. 현대차는 상견례 이틀전 공문을 통해 본인들은 근로계약상 사용자도, 실질적인 사용자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상견례 당일 현대차는 불참 정도가 아니라 공장 정문을 닫고 노조 교섭위원들이 교섭장소(울산공장 현대차지부 회의실)로 가는 출입 자체를 막았습니다. 원청교섭 상견례 노조 교섭위원은 금속노조 위원장의 교섭권 위임을 받은 수석부위원장과 현대차 원청교섭 단위 지회장 10명이었습니다.



노조 교섭위원들은 정문앞을 상견례 장소로 지정하고, 사측이 불참한 상황에서 1차 원청교섭을 진행합니다. 노조는 차후 2차 교섭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현대차 원청교섭 투쟁동지들은 다양한 수단을 모색하여 바지사장 뒤에 숨어있는 현대차 자본을 기필코 교섭장에 끌어앉힌다는 각오입니다.

자본의 저항에도 원청교섭 투쟁의 물결은 커지고 속도는 빨라집니다. 충남지부 비엠아이지회는 4월 24일 10시 원청비엠아이에 단체교섭 상견례를 요청했습니다. 현대모비스 원청에 교섭을 요구한 모듈·부품·물류 25개 지회는 5월 8일 상견례를 추진합니다. 현대모비스의 램프사업부 매각을 저지하기 위한 현대모비스 본사 투쟁도 이어집니다. 세종충남지역 노동절 투쟁은 원청교섭을 거부하는 현대제철 당진 공장앞에서 진행합니다. 현대제철 당진·순천 비정규직, 내화조업정비지회 동지들은 5월 27일 현대차그룹을 타격하고 단체교섭 요구안을 전달하는 투쟁을 준비합니다.



우리는 원청 자본의 태도를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청교섭을 촉진하고 강제하는 역할을 못합니다. 생산을 멈추고 이윤을 끊는 파업만이 자본의 태도 변화를 불러옵니다. 충남지부 원청교섭 투쟁본부 동지들은 실질적이고 완강한 총파업 준비를 할 것입니다.

### 원청이 죽었다! 정부는 조장했다! 화물노동자 노동3권 인정하라

또 한 명의 노동자가 투쟁의 현장에서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상대는 BGF그룹입니다. BFG그룹은 국내 최대 편의점 프랜차이즈 CU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통부문에 BGF리테일을 정점으로 BGF로지스를 포함한 4개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BGF리테일에 납품되는 물품을 운반하는 노동자들입니다. 원청인 BGF리테일에 의해 화물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결정되기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BGF리테일이 실질적인 사용자라며 7차례 교섭을 요청하였습니다.

휴식권 보장 등입니다. 하지만 원청은 교섭에 나오기 커녕 손해배상 협박을 하고, 노조의 파업을 파괴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물품 배송을 강행하여 총 충돌을 유발했습니다. 자본의 탐욕스러운 이윤추구가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것입니다.



화물노동자들의 요구는 하루 13~14시간, 한달 25일 장시간 근무와 매일 야간노동, 휴무 강제반납, 하루 최대 90만원의 대차비용(하루 쉬기 위해 다른 대체기사를 부르는 비용), 순소득 월 300만원의 열악한 임금 등의 처우 개선과

노동부는 화물노동자를 개인사업자라 규정하며, 화물노동자는 개정 노조법에 따른 원청교섭과 무관하다고 합니다. 지난 정권과 똑같은 태도입니다. 노동부는 개정 노조법의 취지를 훼손시키고, 여전히 화물연대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화물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노동3권 무력화를 조장한 정부도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